

대구·경북 지원 간호사 줄이어

전국 간호사들 뜨거운 동료애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선별진료센터' 업무
간협, 직접 모집 나서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체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감염관리병원)' 및 '선별진료센터' 감체 체취'를 위해 지원하는 간호사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에서 직접 지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3월 1일부터 단 하루 만에 510명의 간호사가 지원했다.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신경림 간호협회장)는 3월 2일 오전 9시 긴급 협회로 신청한 '환자 치료' 지원자는 347명, '선별진료센터' 지원자는 163명이라고 밝혔다. 지원한 간호사 명단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된다. 구체적인 파견 일정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0...환자 치료'에 파견되는 간호사는 대구·경북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관리병원에서 감염환자 간호를 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이름 △성별 △연령 △휴대폰 △이메일 △주요경력(임상경력, 근무기관 등) △근무조건(가능지역, 가능기간, 근무형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0...대구지역 '선별진료센터 감체 체취' 업무에 지원하는 간호사는 △이름 △전공과목 △소속 기관 및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근무가능 기간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0...대한간호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발송한 카카오톡채널 메시지 및 이메일에 링크된 온라인 지원서에 입력하면 바로 접수된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지원서 양식에 접속할 수 있다. 문의전화 : 대한간호협회 02)2260-2512.

간협, 코로나19 간호사 지원 성금 모금

전국 간호사들 십시일반 성금 보내와
국민들 "간호사 고맙다" 격려도 이어져

"코로나19 최전선의 간호사들을 위해 응원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간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2월 28일부터 시작했다.

성금 모금 캠페인은 대한간호협회 카카오톡채널 메시지와 홈페이지,

가 다수이다. 성별 비율은 여자 78%, 남자 22%이다.

간호사들은 지원서에 함께 적은 글을 통해 "하루 빨리 배치돼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고, 나라에 대구에 힘이 되고 싶다"며 간절한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나이트 전담도 가능하고, 3교대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중인데 간호사가 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지원한다 △입사 예정인 신입 간호사인데 발령을 미루고 지원한다 △간호사 자매인데 같은 병원에 배치해주면 감사하겠다 △간호사 커플인데 함께 지원한다 등 다양한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그동안 간호사 지원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접수받았으나 대한간호협회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월 1일부터 직접 모집하고 있다. 간호협회를 통해 모집된 간호사 명단은 곧바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제출된다. 구체적인 파견 일정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0...환자 치료'에 파견되는 간호사는 대구·경북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관리병원에서 감염환자 간호를 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이름 △성별 △연령 △휴대폰 △이메일 △주요경력(임상경력, 근무기관 등) △근무조건(가능지역, 가능기간, 근무형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0...대구지역 '선별진료센터 감체 체취' 업무에 지원하는 간호사는 △이름 △전공과목 △소속 기관 및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근무가능 기간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0...대한간호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발송한 카카오톡채널 메시지 및 이메일에 링크된 온라인 지원서에 입력하면 바로 접수된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지원서 양식에 접속할 수 있다. 문의전화 : 대한간호협회 02)2260-2512.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모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간호사들의 뜨거운 동료애를 담은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동료 간호사들을 위해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며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보태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간호사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싶다는 간호협회로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성금 모금은 대한간호협회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간호사의 경우도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 및 단체는 대상이 아니다.

1인 5000원 이상 참여하면 되고, 입금자명에 반드시 이름과 면허번호를 입력해 송금해야 한다. 입금계좌 KEB 하나은행 153-910011-75204(예금주 대한간호협회), 자세한 내용은 대한간호협회 홍보팀(02-2260-2562)으로 문의.



대구동산병원에 파견 지원한 간호사를 격려하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장과 간호관리자들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간호사들이 일정 기간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만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와 정보를 공유하며 간호사들의 안전을 위해 적정 수준의 지원과 인력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현장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국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대구·경북지역으로 자원해 힘을 보태고 있지만 여전히 교대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마스크 구입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함께 지부, 산하단체 등이 힘을 보탤다. 서울시간호사회, 부산시간호사회, 인천시간호사회, 광주시간호사회, 대전시간호사회, 울산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전북간호사회, 전남간호사회, 충북간호사회, 충남간호사회, 경남간호사회, 제주도간호사회, 군진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중소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대구시간호사회와 경북간호사회는 즉시 지역 내 마스크가 필요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대구시간호사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마스크가 부족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대한간호협회에서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대구·경북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의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협, 대구·경북간호사회에 '마스크 1만장' 전달

마스크 구입에 지부·산하단체 등 동참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간호사 동료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1만장을 보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대구시간호사회(회장 최석진)와 경북간호사회(회장 신용분)에 KF-94 마스크를 각각 5천장씩 2월 27일 전달했다.

언론에 보도된 '코로나 전사' 간호사들

못먹고, 못자도, 웃는다... 우리는 간호사다



코로나 최전선 지키는 대구 '백의 전사'들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맥과 피자, 음료수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왼쪽 사진). 발머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잠을 시간도 없는 간호사들은 병원 안 정메시징에서 쪽잠을 청하기 일쑤다(가운데 사진). 방역용(N95) 마스크를 장시간 눌러쓰고 있는 간호사 얼굴엔 붉은 상처가 보였지만 백의의 전사는 밝은 미소를 짓는다. 이 병원은 28일 기준 233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다. (동아일보 2020년 2월 29일)

[동아일보] 못먹고, 못자도, 웃는다... 우리는 간호사다

동아일보는 2월 29일 신문 1면 상단에 코로나 최전선 지키는 대구 '백의 전사'들 사진 3장을 아래의 글과 함께 게재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맥과 피자, 음료수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왼쪽 사진).

발머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잠을 시간도 없는 간호사들은 병원 안 정메시징에서 쪽잠을 청하기 일쑤다(가운데 사진).

방역용(N95) 마스크와 고글을 장시간 눌러쓰고 있느라 얼굴 곳곳에 붉은 상처가 났지만 백의의 전사는 밝은 미소를 짓는다(오른쪽 사진). 이 병원은 2월 28일 기준 233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다.

[국민일보] 간호사들 사투... 코로나19 반드시 이길 것

"동료 간호사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하나둘 격리될 때마다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나가요."

국민일보는 2월 28일 신문 12면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간호사 A씨는 "다른 병동에서 인원을 차출하고 있지만 손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병원에서 급하니 나와 달라고 하면 휴무나 휴일 할 것 없이 곧바로 출근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휴일을 반납한 채 일하고 있다. 상황실을 지키는 간호사들은 하루 15시간 넘게 근무하고, 가족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 병원에서 숙식하고 있다.

최연숙 간호부원장은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간호사 대부분 마스크 자국을 따라 붉은 알레르기 고름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와 환자들 간에 바이러스와 함께 싸운



[사진·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다는 전우애가 느껴진다"며 "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가 생기면 뒤에서 자책하는 간호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연숙 간호부원장은 잠시라도 퇴근하는 간호사들을 볼 때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했다.

그는 "의료진끼리 '고맙다' '수고했다' '내일 한 명이라도 더 살펴보자'고 용기를 낸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지금 내가 있을 곳은 청도...새내기 간호사들 활약

"아직 모든 게 서툴러 겁이 나지만 송고한 나이팅게일 선서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2월 28일 신문 A2면에 올해 대구보건대를 졸업한 새내기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보도했다. 8명은 청도군 차매안심센터와 화양보건지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2명은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돕고 있다. 다른 8명은 출동 대기 중이다.

박은승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 발령을 기다리던 중 "청도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운명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에게는 "평생 간호사로 살아가는데 아픈 환자가 있는 곳이 가는 게 내 소망이고 역할"이라며 설렘했다고 한다.

김일연 간호사는 "처음에 현장을 보고 사실 겁부터 덜컥 났다. 내가 두려워하면 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꼭 잡았다"며 "하루빨리



[동아일보 2020년 2월 28일]

청도가 일상을 찾을 수 있게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준 간호사는 "한 번씩 현장을 마주하면서 힘들게 느껴지는데,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금방 녹았다.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으려고 하셔서 흔했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꺼리더라도 한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들은 "직업윤리를 지켜서 아파 칭찬해 줄 것"이라며 "발령 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원일보] 간호사, 코로나19 환자와 가족들의 희망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서적인 패유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었습니다."

강원일보는 2월 28일자 신문 27면에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강릉의료원 중환자실에서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도했다.

의료진들은 보호복과 마스크, 장갑 2개 등을 착용한 상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방호복 착용과 장시간 근무에 따른 체력 소진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보니 인력 총원이 시급하다.

간호사들은 "방호복 등 장비를 갖추고 병동에 입실해야 하는 상황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의류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조차 사치라고 여겨질 정도"라고 말했다.

손미숙 수간호사는 "국가지정 공공병원 의료진의 일원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환자 보호의 임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속속히 마무리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바이러스와 맞서 싸워 이길 것"이라는 각오를 보였다.

신문은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는 이들의 당찬 각오가 감염증 환자와 가족들의 희망이라고 보도했다.